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페도난나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름특집 메디컬 토크 콘서트 2부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40 신문이야기 풀적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40 다섯쌍자의 어머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클래식 오디세이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특별기획드라마 <갈과 꽃>(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재)	00 SBS 여름캠프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 부모혁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여왕의 교실>(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30 피우자 민들레(재)
1 00 명랑해결단(재)	00 KBS 걸작선 (이리쓰기)(재)			
2 10 탐정왕평	00 KBS 뉴스 1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1편 (재)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10 2013 바르셀로나 세계 수영 선수권 <여20m 다이빙 결승>(재)	35 킬투의 베란다 쇼 스페셜	00 SBS 뉴스 10 문화가계(재)
3 20 직언직설	10 네트워크 특선다큐 <한중독 만남, 소통 그리고 이산>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미니미니(재)	00 MBC 3시 뉴스 10 와우 신나는 세계여행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4 30 페도난나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갈매기 도시>	00 최강합체 익스미스터(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즈 30 안녕 토토비	00 꿈의보석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통들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못말리는 라바와 비트파티 (재) 15 이기종별레 포포(재) 30 여름특선다큐 <우리가 몰랐던 인도양 여행>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생TV 전국을 달린다	05 전국TOP10 가요쇼(재)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8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자서적인 감천)	2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구암하준> 30 킬투의 베란다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제2편	00 특별기획드라마 <갈과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여왕의 교실>	00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1 00 웰컴 투 돈월드(재)	30 KBS 뉴스라인	10 드라마 스페셜 <사춘기 메들리 4부>	2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0 짝
12 1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재) ①:20 2013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 다큐(재)	20 스포츠 다큐 <솔부> 40 세상의 모든 다큐 3부작 <또 다른 세상 1부 카카오 나무의 그늘>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아리 15 마을 이야기 울림광장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①:10 테마스페셜

EBS

06:00 건강환 아침	09:40 깨미	13:4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8:30 곤
06:10 한국기행(서천)	09:50 지구를 지켜라	14:05 EBS 인문학 특강	18:45 정글북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세계대미기행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7:00 곤	<동유럽의 보석상자, 루마니아 3부 - 유럽의 아미존 다뉴브델타>	15:15 중풍짜짜리	19:25 지식재능
07:15 정글북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비두와 친구들	19:30 행복한 학교 만들기
07:30 마이의 모험	<윤숙자의 두고 두고 먹는 여름밥상 - 부모독 모듬 장아찌와 장아찌>	15:45 마이의 모험	20:20 시네마 천국
0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	11:20 부모 <아이 마음 실험실>	16:00 덩동덩 유지원 1~2(재)	20:50 세계대미기행(캐나다)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20 피들리	21:30 한국기행(청송)
08:20 시계마을 타기	12:10 EBS 다큐프라임	16:30 꼬마버스 티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꼬마버스 타요	<7생 PARASITE>	16:45 오모아(재)	<한국의 강>
08:50 오모아	13:0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똥똥이(재)	22:45 극한탈출
09:00 방귀대장 똥똥이	13:2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17:10 시계마을 타기(특제)	23:15 다큐 10+
09:15 푸비바! 눈보리		17:2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24:05 한국 영화특선
09:30 피들리		17:40 생방송 특목 보너스 1~4	<나그네 검객 황금 108편>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급	<수학(하)> 12:3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화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뉴스	<문화(A)>
04:10	<기하와 벡터> 16:00 EBS N제	<사회문화>
05:00	<수학II> 17:00 인터넷뉴스	<듣기(B)>
05:50 탐스런	<물리I> 18:00 EBS 수능연성	<국어 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9:00	<국어 B형>
	<영어특혜의 기본(1)> 20:00	<영어 A형>
	<Basic Grammar> 21:00	<영어 B형>
07:30 탐스런	<화학I> 22:00	<생명과화학I>
09:10	<생명과화학I> 23:00 2013 전공적성	
10:00	<지구과학I>	<대입적성검사 EBS모의고사 해설
10:50	<물리II>	<외국어>

EBS플러스2

07:00 공민중개사 시합대비 강좌	15:20 한지교육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7:30 EBSe 생활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미래를 보는 소년)
08:00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08:30 주재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6:4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①280제>	17:0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09:50 <영어① 독해 240제>	17:20 초등개념잡기 <국어>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한문>	18: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수학>
11:1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2>	18:40 이기! 한국사 <영어2>
11:50 <영어2>	19:20 세계의 이어들 <영어3>
12:30 <영어3>	20:00 원초보 중학영어 <수학3>
13:10 <수학3>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13:50 변변한영어	21:2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①280제>
14:10 신비탐 실험실	22:00 <영어① 독해 240제>
14:30 골골 초등국어 문법(1)(2)	22:4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2>(재)
15:10 사회가 속속	23:20 <영어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한다. 48년생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60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72년생 부주의 한다면 큰 일 날수도 있다. 84년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3, 55	午	42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가 전개 되리라. 54년생 유명무실한 것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 66년생 지식 보다 지혜를 더 우선시해야 할 때다. 78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 대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6, 09
丑	37년생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49년생 다중적인 의미가 있느니라. 61년생 본디 그대로의 날방탕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73년생 숙된 것이 천하라는 뜻도 있느니라. 85년생 참으로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4, 31	未	43년생 앞장져 벌어들일 수도 있으니 대비 해야겠다. 55년생 중개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67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79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이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88
寅	38년생 장래의 길흉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도다. 50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될 것이니라. 62년생 기본 질서와 체계에 순응함이 좋다. 74년생 면전에서 비교는 삼가야 하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69	申	44년생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절단해야 한다. 5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니라. 68년생 힘든 만큼에 비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80년생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35, 20
卯	39년생 파격적인 행보나 뜻하지 않은 영예가 있을 수다. 51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63년생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75년생 복잡하다면 과감하게 줄여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5, 93	酉	45년생 백 번의 장담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더 낫다. 57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69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81년생 착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3, 81
辰	40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방심하기 쉬운 법이다. 52년생 주어진 여건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4년생 기회다 싶으면 확실히 붙잡아라. 76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91, 27	戌	46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58년생 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도 있다. 82년생 과거의 사실에 착안해서 추측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50, 24
巳	41년생 자기 확산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53년생 과장이나만큼 흥분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뒤따라야 한다. 77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0, 73	亥	47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59년생 흐름을 뒤바꿀만한 영향력 있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초심으로 임한다면 무난하리라. 83년생 처리라 아니하면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3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내 목표는 한국의 찰리 채플린”

하정우, '더 테러 라이브'서 '윤영화' 역... 존재감 발산

“배우로서 성공했다고요? 제 목표는 아직 한참 멀리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개봉(31일)을 앞두고 최근 만난 하정우는 그에 관한 세간의 찬사를 이렇게 일축했다.

“충무로의 대세”로 불리는 그가 지나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종착역을 들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을 연기했다.

“찰리 채플린처럼 언어가 다르더라도 통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진짜 글로벌한 영화를 만드는 거죠.”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페이스소 연기, 시대를 깨우는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영화를 만든 배우이자 감독 채플린은 전 세계 배우와 감독들이 꿈꾸는 최고의 경지로 남아있다. 배우 하정우는 충무로의 대세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큰 꿈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 내놓은 신작 '더 테러 라이브'는 그의 야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영화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해 마지막 장면까지 97분간 그의 연기로 빼곡히 채운다. 뉴스 앵커 '윤영화'로 분해 라디오 부스에서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생중계하는 연기는 고정된 무대 위에서 흘러 흘러가는 1인 연극만 줄곧 보는데도 지루함을 느낄 새가 별로 없다는 것.

지난 주말 유료시사회에서만 벌써 12만 관객이 들었다. 벌써 흥행 조짐이 보이지만, 당초 그에게는 이 작품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시나리오를 보지도 않고 이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베를린’ 끝난 지 얼마 안됐을 때였고 ‘톨레코스터’(감독 데뷔작) 후반 작업도 남아있었고 새 작품 ‘군도’도 천천히 준비하면서 여유있게 가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시나리오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야기 구조가 타이프하게 잘 짜여 있

더라고요. 이 캐릭터에 내가 향을 입히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영화는 그가 ‘톨레코스터’로 감독의 위치를 경험한 뒤 배우로 돌아와 찍은 첫 영화다. 실제로 작품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연출을 해보고 나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낯뜨거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감독이 열심히 만든 콘티, 대사 한 줄을 쉽게 바꾸려고 들고 그랬죠. 감독은 더 넓은 결 보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웠어요. 이번엔 좀 달랐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뭐야?’ 하기보다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감독에게 ‘이 대사가 왜 나온 거죠?’라고 질문할 때 그 의미가 전과는 달라진 거죠. 감독의 얘기를 더 듣고 감독의 로서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배우로서의 욕심은 ‘영화 100편에 출연하기’라고 했다. “앞으로 4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배우만 하면 60살 정도에 하겠는데, 감독을 같이 하게 되니까 70대 중반까지는 하게 될 것 같네요.”

감독으로서의 욕심도 작지 않다. 연출을 준비 중인 작품이 ‘허삼관 매달기’와 앙드레 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까지 두 편이나 된다.

감독으로서의 욕심도 작지 않다. 연출을 준비 중인 작품이 ‘허삼관 매달기’와 앙드레 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까지 두 편이나 된다.

감독으로서의 욕심도 작지 않다. 연출을 준비 중인 작품이 ‘허삼관 매달기’와 앙드레 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까지 두 편이나 된다.



하정우

문체부, 방송가 '표준계약서' 마련... '쪽대본' 문제도 해소

고(故) 김중학 PD의 죽음으로 불거진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방송가의 뿌리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주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KBS 등 공적 감시 대상인 공영방송은 업계 합의로 마련된 이번 표준계약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프로그램 제작 관행 개선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가 갖는 저작권을 상당 부분 양보하게 했고, 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출연료 미지급 방지안을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미지급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게 했고, '쪽대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촬영일 2일 전까지는 대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TV 하이라이트

정찬, 마다가스카르 왕복 도전



리얼체험-세상을 품다(KBS 2TV·밤 10시 50분) = 정찬의 '정글 택시' 2부. 정찬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이자 지옥의 하이웨이로 불리우는 마다가스카르 5번 국도의 밀림택시 운전사에 도전한다.

800km 남짓한 5번 국도는 왕복하는데 6박7일이 걸릴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 도로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전 구간이 비포장도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사고 다발 지역으로 현지 택시 기사들조차도 들어가기 꺼리는 이 구간을 정찬은 무사히 왕복할 수 있을까?

변변한 휴게시설 하나 없는 오지에서 2~3시간 폭잠을 자며 일주일간을 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마다가스카르의 밀림 택시 운전사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배우 정찬이 이야기 한다.

태국 경제의 힘, 자동차 산업



다큐10+(EBS TV 밤 11시15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시장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4부작 다큐멘터리 '아시아 경제의 혁명'이 방송된다. 1부에서는 태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펴본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던 태국은 어떻게 10년도 지나지 않아 아시아의 가진, 자동차강국으로 거듭났을까? 이런 궁금증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시작됐다.

태국은 아세안의 중심국가 중 하나이고 임금에 비해 노동력의 질이 높기 때문에 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에 버금가는 거대시장 아세안. 태국경제는 그 중심에서 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설의 주막' 3인방의 솔직 토크



황금어장-라디오스타(MBC TV 밤 11시20분) = '전설의 주막' 편으로 꾸러져 박남현, 홍기훈, 유태웅이 출연한다. 이들은 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김진수가 연에게 싸움 순위를 언급해 화제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박남현은 연에게 싸움 순위 1위의 위엄을 보여주듯 스튜디오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해 초반부터 강한 기선제압으로 MC들을 당황시켰다.

박남현은 “1위에 만족하냐?”고 묻는 MC의 질문에 “필대로 반갑지 않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싸움 순위 1위를 강하게 부정했다. 이외에도 5인 홍기훈과 아마추어 복싱대회 예비급 신인왕 출신이자 싸움 순위 7위의 배우 유태웅은 싸움 실력에 버금가는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